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 또 연말정산을 할 때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다진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소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 청년 실업 등 '이곳의 작은 정의'가 아니라, 국보법 폐지, 과거사 규명, 사학 민주화 등 자고 세도록 '저곳의 큰 정의'를 위한 싸움에만 매진하였다.

시부모 모시는 논쟁에서 모든 남편은 모든 아내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듯이, 혹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검(寶劍)을 지닌 생명·의료윤리학자는 복제기술자보다 언제나 유리한 논쟁의 입지점을 가지듯이, 지난 한 해 우리는 공정성, 민주, 진보, 개혁이라는 고상한 이름의 '저 곳' 강한 로고스'에 짓눌리며 살아왔다. 압도적인 다수이면서도 헤겔 풍으로 '현실적인 것은 정의이고, 정의로운 것은 현실'이라고 항변하지도 못한 채 말이다.

정치는 현실이기에, '현실 정치'는 사실을 지향해야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일년 내내 꿈을 지향해 왔다. 저러한 소수의 유평파적 정의론자들 앞에 서면 우리는 늘 타협에 익숙한 비겁한 현실주의자로 한없이 작아진다.

대(大)의 소견(小見)의 갈등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소극적인 회피 전략을 쓴다는 점에



**불자 세상보기**

구 승 회  
동국대 교수 · 윤리학

**연말에 '정산' 할 것들**

서 나는 비겁한 현실주의자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는 소견으로 사는 현명한 길임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돌아보는 삶은 아름답지 않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동문회를 비롯한 일년을 회고하는 각종 송년 모임에 나가지 말자. 왜 안 오느냐고 물으면, 1년은 10년이든 인생 전부든 한 게 없어 차마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공식적인 불합리유를 대면 된다.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후회도 반성도 필요 없고, 긍정과 부정을 넘어 가치중립적인 연말정산

을 할 수 있으며, 한 번의 판단 착오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직 그 순간에만 유효한 판단만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의 시처럼, 바람보다 먼저 판단하고, 바람보다 먼저 결정하는 이런 원칙은 결정과 판단의 오류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짊어져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오류가능성이 큰 결정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원칙은 자기 파괴적이라 비판할 것이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포기하라'는 제1보

충 원칙이 필요하다.

이는 매사에 '지는 게임'을 하자는 것인데, 처절한 생존 게임에서 '밀저야 분전'이라는 태도 만큼 든든한 배후는 없다. 그것은 수없는 '패배'를 통해 확인된 철저한 경험법칙이다.

이로부터 '인생을 계획하지 마라'는 제2보충 원칙이 나온다. 모든 인생계획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는 수립할 수 없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계획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나는 삶을 자신의 계획 하에 둘 수 있다고 믿거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그것은 내가 신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아서가 아니라, 뜻을 세우기에는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대원칙과 두 개의 보충 원칙은 종도 다 양하지 않고 개체수도 적은, 그러나 고고한 1급수 여중에게 해당하는 유평파적 정의론자들의 눈엔 타락한 기회주의자, 무책임한 쾌락주의자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방어처럼 3급수 탁류에서 행복해지고 싶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겐 '희망의 원리'일지도 모른다. 이 원칙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내년 1월에는 '잘나적이고, 아슬아슬한 임기응변이 주는 즐거움'을 추가로 환급받을 것이다.

\*小見 한자는 필자가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것임

**자원봉사 현장에서**

**대학병원 '놀이방' 문닫은 까닭은?**

특별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있다. 그저 누구나 갖고있는 아름다운 마음만 꺼내쓰면 되니까... 그 맑은 마음은 퍼내고 퍼내고 마를 날이 없기 때문에 마냥 행복한 물건이다.

이 세상에는 그늘지고 소외된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눈물만 흘러내리기도 한다. 힘들고 그늘진 곳에서 나를 부르던 언제라도 달려가고, 그곳이 차츰 세간에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많이 생길 때면 언제라도 산뜻하게 떠나버리는 것이 지금껏 해온 나의 봉사방법이다.

그런데 이번엔 새로 시작했다가 몇 달 안되어 문을 닫은 병원 놀이방 봉사는 힘든 경우였기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활동을 시작한지 2년째가 되었다. 요즘 가정경제가 어려워져서 병동의 입원환자들은 차츰 가정간호로 돌아오고 있다.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줄어들게 되자 봉사자 인력은 남아돌게 됐다. 어느날, 병원직원에게서 봉사자가 없어서 3년째 비워둔 병원 놀이방을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평소 어린이를 좋아하고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기에 쾌히 승낙을 하였고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몇

몇 법우들과 놀이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관 13층에 있는 무료놀이방은 소아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되었다. 처음 놀이방 문을 열어보니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병원측에서는 그저 공간만 제공해 주었을 뿐 일체의 보소는 없었다.

놀이방 이용자는 대부분이 입원 어린이와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 임아가 진료를 받는동안 아이를 맡기기도 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제공되었다. 간병인과 보호자들

도 따끈한 차 라도 한잔 하면서 잠깐씩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우리 봉사자들은 배려를 해주었다.

병원내에는 교회가 아주 번듯하게 세워져 있고 천주교에는 원목실과 집회할 수 있는 대강당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불자를 위한 법당은 없다.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중에는 스님의 손이나 장삼자락이라도 잡고자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있다. 소아과병동에서는 어린이가 고열로 입원하고 있을 때나 큰 수술을 받을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법당을 찾고자

하는 부모들을 볼 수 있다. 불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스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놀이방이 비록 불상이 섰을로 건네기도 하고 연꽃 곁들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몸이 아파서 짜증을 내는 어린이를 달래주려고 함께 색종이접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벽에 붙여 놓기도 했다.

하루에 20여명이 다녀가는 놀이방을 6개월동안 장난감 소독조차 한번

**장난감 소독 한번 안 해주는 병원 야속**

**생색내는 일만 찾는 봉사자 의식도 문제**

해주지 않았고, 손 씻을 종이타월도 마련해 주지 않아서 봉사자들이 뺨아대는 수건으로 환자들의 손을 씻어주었다.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출근해보면 놀이방이 난장판이 되어있었다. 또한 우리가 붙여놓은 무료놀이방 홍보물 포스터도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병원측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물어보면 "누가 문을 열어주었을까? 우리는 교대근무를 해서 잘 모르겠네요..." 하며 말꼬리를 흐리고 만다.

그렇게 무성의한 병원측에 실망한 봉사자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며 마음이 떠나갔다.

입원해 있는 동안 놀이방을 자주 놀러오던 아이가 퇴원하는 날이면 봉사자들은 색종이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로 건네기도 하고 연꽃 곁들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몸이 아파서 짜증을 내는 어린이를 달래주려고 함께 색종이접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벽에 붙여 놓기도 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모인 날에는 비디오풀을 틀어주거나 손가락인형을 갖고서 구연동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놀이방을 찾아오는 환자 부모들과 방문객들은 우리 봉사자들에게 너무 좋은일을 한다며 무척 고마워했다.

구의동 우리집에서 휘경동의 그 의원까지 가려면 하루에 8번씩 차편을 갈아타야만 했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또한 한명의 불자라도 만나기 위하여 나는 힘들어도 힘든줄 모르고 날마다 그 길을 다녔다. 병원측의 무관심과 무성의에 화가난 법우들은 병원을 떠나고 봉사자를 포기하고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다급해서서 봉사자들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찾아 다녔고 곳곳을 두드려며 봉사자를 한 두명이라도



이 희영화  
(인수혜정 · 조계종 포교사)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모스님은 내가 어린아이 보인다는 듯이 '보살! 공언히 힘 빼지 말고 그만둬. 지내들이 부처님 보고 싶으면 법당으로 오면 되잖아. 스님께서 그렇게 힘든데도 싫어하시니까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하신다.

친분이 있는 불자들은 "어느 스님이 운영하는거야? 무슨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스님은 다른데 가서 봉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안돼..." 하며 명분이 있고 알려진 일이 아니면 선뜻 나서주지를 않았다. 혼자서 애달은 시간을 보낸지 얼마안되서 놀이방의 문을 닫고 말았던 것이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그들에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병원내 작은 법당이 꼭 생기기를 발원한다.

퇴원을 하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떼지 말라고 약속하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늘상 함께해준 법우들에게 마음고생만 시킨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부질없는 짓이겠지만 혹시라도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원력 큰 불자가 나타나 그 병원에 맑은 응달샘 같은 법당이 자리하기를 기대해본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사랑의 온도'가 지금 60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부터 펼치고 있는 연말 '2005 이웃사랑 캠페인'의 '사랑의 체온도 탐'이 가리키는 현재 한국인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체온이다.

경기 불황으로 얼마간의 소비조차 주저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인으로서의 의외로 따뜻한 체온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이웃의 손길에서 소외된 불우이웃이 적지 않다. 이웃돕기 캠페인이 한시적 아닌 연중 행사로 바뀌면서 매해마다 불우이웃 찾기와 이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이어주고 있으나 아직 도움의 사각지대에서 끼니조차 때우기 힘든 불우한 이웃이 많다.

네 살짜리 장애아가 굶어죽자 이에 당황한, 역시 정신지체 장애인인 어머니가 시신을 이를 동안 장물 속에 넣어두었다가 한 종교기관에 '먹을 것이 없으니 도와 달라' 호소했다는

**추운가? 주변을 둘러 보라**

소식은 우리 사회의 극빈자 구호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부의 하루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 한달에 일주일 정도는 통째로 굶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 가족은 극빈층에다 장애인 가족이었음에도 국민기초생활 급여나 장애급여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극빈자 구호체계에 구멍이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저소득층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요즘, 구호업무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올해 '사랑의 온도'에서 보듯 한국인의 마음은 따뜻하고 불우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도 크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불자들에게 육바라미 최고 덕목인 보시바라미 실천을 돕고 있는 분지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서도 우리는 그 따뜻한 마음들을 보고 있다. 아무리 경제여건이 나쁘더라도 우리에게 불우이웃을 도울 경제력과 능력은 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 보시에 대한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희망일 것이다.

네 살짜리 장애아의 죽음을 보며 극빈자 구호에 책임 있는 정부가 나서 우리 사회, 도움의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정상화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 ■김경자(칼럼니스트)

**'연대' 민명** 심민섭

다른 말로 웰빙복지...

**연화정은 선과 차문화 공간입니다.**  
**연화정사를 건립하기 위한 원력도량입니다.**

차향 가득 ~  
**蓮華井茗茶**

- \* 봉황단종
- \* 무이수선
- \* 야생고정(천상유수)
- \* 장뇌삼씨앗차
- \* 보이차 - 1967~1970년 초, 대엽청병, 야생고목, 노교목청병
- \* 화(花) 차 - 다양한 화차(꽃차)
- \* 대홍포
- \* 철관음
- \* 고칭차(일엽차)
- \* 보이산차

연화정 오시는길

\*경북광역시 3번 출구에서 150m 통의동 우체국 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92번지 연화정 (3호선 경북광역시 3번 출구 통의동 우체국 뒤) / Tel : 02)739-1811 / Fax : 02)739-1812